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l076@kiwoom.com



키움증권

미 증시, FOMC 금리 동결 속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 소식에 반등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7일(수) 미 증시는 5월 FOMC에서 미 연준이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 동결을 결정한 가운데 파월 연준 의장의 혼재된 발언에 변동성 장세 연출. 다만, 장 막판 트럼프 행정부의 AI 반도체 수출 규제 폐지 소식에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반등(다우 +0.70%, S&P500 +0.43%, 나스닥 +0.27%).

시장의 예상대로 5월 FOMC에서 미 연준은 지난 3월에 이어 4.25~4.50%로 기준 금리를 동결. 금번 5월 FOMC 성명서 내용이나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준은 데이터 후행적으로 대응(Wait and See)하겠다는 스탠스를 지속적으로 견지. 관세 정책 등으로 실업률 확대, 인플레이션 재상승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나, 미국 경제는 아직까지는 견조하고 1분기 역성장했던 GDP도 향후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발언.

최근 연준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 불일치가 심화되고 파월 연준의장도 명확한 통화정책 경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는 결국 연준이 실업률 상승 위험과 인플레이션 재점화 사이 정책 딜레마를 겪고 있다는 점을 방증. 이러한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Fed Watch 상 6월 FOMC에서의 25bp 금리 인하 확률도 전일 30.5% → 현재 19.8%로 낮아진 상태. 다만, 역설적으로 하드데이터를 중심으로 경기지표의 침체 시그널이 나타날 경우 연준은 언제든지 빠르게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 따라서, 관세 정책의 영향이 반영되는 5월 경기 지표에 대한 증시 민감도는 한층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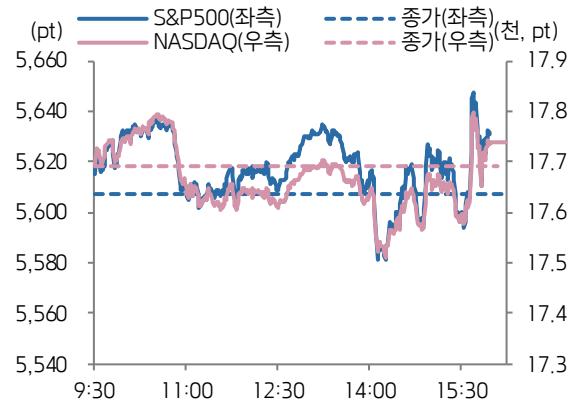
최근 미 증시의 기술적 반등을 이끌었던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은 현재 진행형인 모습. 금주 후반 스위스에서 미 중 양국 간 무역 협상과 관련한 고위급 회담이 진행될 예정. 물론, 미국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언급하는 중국 측 발언과 중국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생각이 없다는 트럼프의 강경한 발언을 토대로 봤을 때 금번 회담을 통해 극적인 무역 협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다만, 미중 협상 기대감을 자극할 뉴스플로우가 지속된다는 점은 긍정적.

한편, 이 날 장 막판 미 증시를 끌어 올린 요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AI 칩 수출 통제 정책 철회 발표. 오는 15일 발효 예정이었던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 철폐 소식에 엔비디아(+3.1%), 브로드컴(+2.4%) 등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1.7%) 상승. 반도체 칩 수출 통제 철회는 금일 개장 초 아시아 증시 내 AI 관련 주에 훈풍으로 작용할 전망.

전일 국내 증시는 5월 FOMC 경계감,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장 중반까지 흔들리는 장세가 연출되었으나, 미 중 협상 관련 고위급회담에 대한 기대감, 중국 지준율 인하 소식에 위험 자산 선호 심리 강화되며 후반부 양 지수는 상승 마감(코스피 +0.55%, 코스닥 +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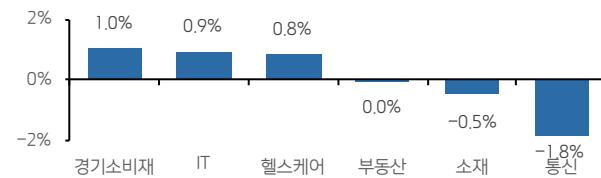
금일 국내 증시는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한 5월 FOMC 결과와 트럼프 행정부의 AI 반도체 수출 규제 폐지 소식에 힘입어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전망. 한편, 4월 이후 외국인의 코스피에 대한 순매수 자금은 2거래일 연속 유입되지 않았음. 이에 따라, 전일 외국인이 코스피에 대해 3,400억원 순매수한 데 이어 금일에도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지에 주목해볼 필요.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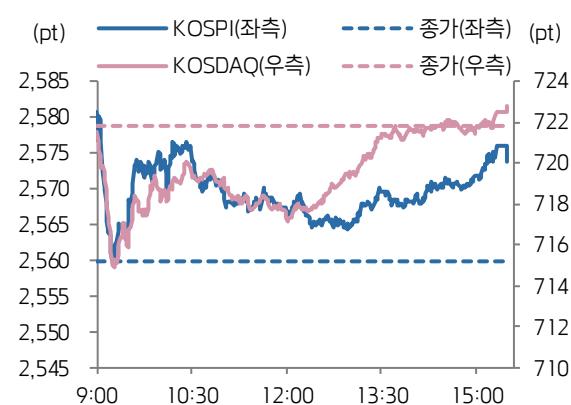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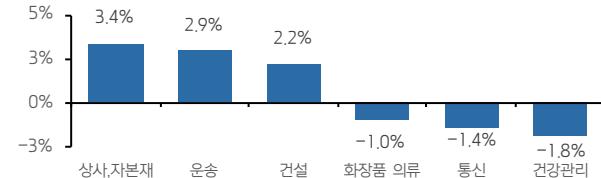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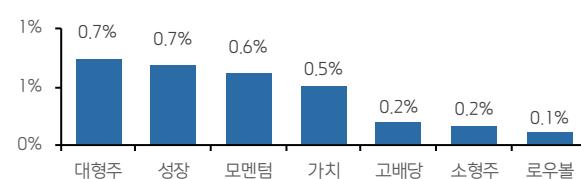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196.25	-1.14%	-21.55%	GM	45.47	+0.02%	-14.42%
마이크로소프트	433.35	+0.01%	+3.02%	일라이릴리	776.72	+0.21%	+0.78%
알파벳	151.38	-7.26%	-19.94%	월마트	98.83	+0.28%	+9.69%
메타	596.81	+1.62%	+2.02%	JP모건	249.39	+0.06%	+5.22%
아마존	188.71	+2%	-13.98%	엑손모빌	104.61	-0.1%	-1.88%
테슬라	276.22	+0.32%	-31.6%	세브론	135.79	+0.14%	-5.21%
엔비디아	117.06	+3.1%	-12.82%	제너럴일렉트릭	98.83	+0.3%	+9.7%
브로드컴	204.81	+2.36%	-11.39%	캐터필러	320.29	-0.19%	-10.96%
AMD	100.36	+1.76%	-16.91%	보잉	185.56	-0.22%	+4.84%
마이크론	82.62	+2.62%	-1.7%	넥스트에라	67.36	+1.2%	-5.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2,573.80	+0.55%	+7.26%	USD/KRW	1,394.00	-0.54%	-5.32%
코스피200	341.31	+0.74%	+7.39%	달러 지수	99.81	+0.58%	-7.99%
코스닥	722.81	+0.13%	+6.58%	EUR/USD	1.13	-0.61%	+9.15%
코스닥150	1,175.67	-0.81%	+4.06%	USD/CNH	7.23	+0.26%	-1.49%
S&P500	5,631.28	+0.43%	-4.26%	USD/JPY	143.83	+0.97%	-8.51%
NASDAQ	17,738.16	+0.27%	-8.14%	채권시장		가격	DTD(bp)
다우	41,113.97	+0.7%	-3.36%	국고채 3년	2,252	-3bp	-34.3bp
VIX	23.55	-4.89%	+35.73%	국고채 10년	2,602	+0.7bp	-26.9bp
러셀2000	1,989.66	+0.33%	-10.78%	미국 국채 2년	3,777	-0.6bp	-46.5bp
필라. 반도체	4,386.36	+1.74%	-11.92%	미국 국채 10년	4,269	-2.5bp	-30bp
다우 운송	13,782.00	+0.72%	-13.3%	미국 국채 30년	4,769	-2.8bp	-1.2bp
상해종합	3,342.67	+0.8%	-0.27%	독일 국채 10년	2,475	-6.5bp	+10.8bp
항셍 H	8,242.25	-0.23%	+13.06%	원자재 시장		가격	DTD(%)
인도 SENSEX	80,746.78	+0.13%	+3.34%	WTI	58.07	-1.73%	-17.24%
유럽, ETFs		가격	DTD(%)	DTD(%)	YTD(%)	가격	DTD(%)
Eurostoxx50	5,230.19	-0.63%	+6.83%	브렌트유	61.12	-1.66%	-18.11%
MSCI 전세계 지수	844.03	+0.25%	+0.32%	금	3,391.90	-0.9%	+25.99%
MSCI DM 지수	3,687.16	-0.55%	-0.56%	은	32.53	-1.76%	+11.25%
MSCI EM 지수	1,137.42	-0.19%	+5.76%	구리	461.65	-2.5%	+14.65%
MSCI 한국 ETF	57.79	-1.21%	+13.56%	BDI	1,406.00	-1.06%	+41.02%
디지털화폐		가격	DTD(%)	DTD(%)	YTD(%)	가격	DTD(%)
비트코인	96,794.09	+2.21%	+3.29%	옥수수	449.25	-1.37%	-4.16%
이더리움	1,798.48	+1.3%	-46.26%	밀	534.25	-0.33%	-6.19%
				대두	1,039.25	-0.19%	+0.43%
				커피	384.10	-1.47%	+24.5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5월 7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알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기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기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